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호랑이 유니폼 송은범 “우승하러 왔다”

V11 ... ‘날개’ 단 KIA 마운드 ‘기호지세’  
SUN “선발·중간 다양한 경우의 수 가능”

KIA 마운드가 ‘신입 호랑이’로 날개를 달았다. 7일 KIA 타이거즈 덕아웃은 새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이들을 맞이 위해 분주했다.

6일 김상현·진해수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타이거즈 맨이 된 송은범과 신승현이 그 주인공. 새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이들을 위해 경기 전에 전체 미팅이 소집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순철 수석코치의 환영사와 함께 선수들의 박수를 받으며 정식으로 ‘호랑이 군단’ 멤버로서의 신고식을 치렀다.

바로 1군에 등록된 두 사람은 선수들과 함께 첫 훈련을 진행하면서 팀 적응에 나섰다. 활발한 성격의 송은범은 “원래 있던 선수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만나질 만에 팀 적응을 끝냈다.

사이드암 신승현은 “감독님께서 웃으면서 ‘잘 왔다. 잘 해보자. 와서 든든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다. 항상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 내가 기회를 잡지 못한 것도 있고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왔다. 그동안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팀 우승이 목표이고 그만큼 내가 잘 해야 한다. 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팀 적응에도 문제가 없다.

신승현은 “(SK에서 함께 했던) 이성우를 다시 만났는데 첫날부터 텃세를 많이 부리더라”고 웃으며 “많이 우승을 해본 팀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인데 그 안에 나름의 규율도 있다. 내가 눈치를 봐야하는데 후배들이 눈치를 보더라”며 첫날 분위기에 대해 전했다.

우안 송은범은 훈련 전부터 “우승하러 왔다”는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우승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보였다.

송은범은 “팀 분위기가 밝고 좋다. 팀이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시켜주시라고 했다. 감독님께서 열심히 하자, 잘 해보자고 반겨주셨는데 투수 출신 감독님이라 기대가 많이 된다”며 “팀 성적이 좋고, 우승 확률도 높다. 전 경기에서 모두 잘 던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남들 보다 덜 실패하자는 마음으로 한다. 나에 대한 기대를 만족 시켜야 한다는 점이 걱정이기도 하지만 (기대되는)의무감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은범표 구수한 입담도 눈길을 끌었다.

인선 동산고 후배인 LA 다저스 류현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송은범은 “KIA 타이거즈의 송은범 선수라고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끊었다”고 말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신입 호랑이 신승현

새 동료에 대해 묻자 “팀 분위기가 좋다. SK 시절 광주 경기를 오면 웨이트장에서 선배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나중에 우리 팀 오라던 최희섭 선배가 ‘너 너무 빨리 왔다. FA 하면 오지 그랬냐고 농담을 했다. 김원섭 선배도 ‘너 원래 있는 선수 같다’고 했다”며 웃었다.

적에서 동료가 된 윤석민과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렸다.

한팀에서 윤석민과 함께 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석민이랑 주말에 불펜에서 나란히 붙어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둘이 짜구와 슬라이더, 같은 유형의 투수다. 석민이가 나가고 나서 내가 나가면 맞을 것이다.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불펜진이 나에게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나도 혜택을 받으러 왔다. 앤서니에게 기필 것 이다”고 말하며 구수한 입담을 자랑했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든 이들은 마운드의 새로운 전략도 만들어내게 됐다. 윤석민이 불펜을 수행하게 되는 이번 주 송은범까지 불펜에 대기하면서 주말 삼성과의 경기는 마운드 명승부가 예고된다.

선동열 감독은 “윤석민, 송은범, 임준섭이 모두 선발로 가능한 자원이다. 윤석민이 선발로 가면 임준섭을 중간에서 쓸 생각이다. 6선발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송은범, 임준섭이 선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일 오후 광주무등구장에서 열리는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 앞서 KIA로 트레이드 된 송은범이 밝은 얼굴로 피칭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① 덕아웃 말말말  
검색어 1위 오른 송은범  
“KIA 팬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에 던진 애들은 편하게 던지겠지. 윤석민이 뒤에 있으니까=선동열 감독, 이번 주까지는 윤석민을 불펜으로 기용할 예정이라면서.

▲무슨 사고친 줄 알았어=트레이드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는 김원섭, 월요일인데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송은범이 있어서 놀랐다며.

▲KIA 팬들 대단하더라고요=송은범, 처음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해봤다며.

▲아 11로 해야하나?=사진 촬영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던 송은범, KIA에 왔으니 11을 해야겠다며 양손 검지를 들어 보이면서, KIA는 올 시즌 V11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잘 어울리네=KIA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송은범과 신승현을 본 이대환, SK에서도 빨간 유니폼을 입어서 그렇지 잘 어울린다며.

▲불길이가 아프다네=이순철 수석코치, 타격에 불이 붙은 신중길이 어깨가 안 좋다면서.

▲이제 피곤하네=을 시즌 처음으로 1군에 등록된 이준호, 훈련 도중 시차 적응이 안 된다면서, 2군은 오후 1시에 경기를 한다.

▲너 지금 몇 시야?=출근하는 소사를 본 김진우, 시계를 가리키면서 한국말로, 휴식 조였던 소사는 다른 선수들보다 느긋하게 출근했다.

▲나를 잘하고 있는 거네=슬로우 스타터인 이영구, 지난 시즌 이맘때에는 타율이 0.173이었다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10구단 이름은 ‘KT 위즈’

한국프로야구 제10구단 이름이 ‘KT 위즈(Wiz)’로 결정됐다.

프로야구 제10구단을 운영하는 KT는 공모를 통해 야구단 공식 명칭으로 ‘KT 위즈’를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KT 위즈’에는 ‘비상한 해미와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 달인’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구단은 설명했다. 또 ‘Wizard’의 축약 형태로 ‘마법사’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응모안에 대한 단계별 심사과정에서 다수의 브랜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KT 위즈’는 읽거나 발음하기 쉽고 친근하며 다양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돼 ‘KT야구단’이 추구하는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KT 위즈’ 야구단은 이름에 걸맞게 기존 9개 구단을 상대로 ‘야구의 달인’과도 같은 뛰어난 플레이로 돌풍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구단 운영에서도 KT의 다양한 인프라와 앞선 기술을 활용해 ‘마법과 같은 야구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 FC ‘FA컵 기적’ 꿈꾼다

오늘 충주 험멜과 32강전

값진 승리로 5월 대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광주가 FA컵 사냥에 나선다.

광주 FC가 8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충주 험멜을 상대로 2013 하나은행 FA컵 32강전 승부를 벌인다.

광주는 지난 주말 부천과의 원정 승부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루시오의 극적인 골로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순위는 최하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고 가라앉았던 팀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다. 광주는 이 분위기를 이어 충주전까지 승리로 장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잠잠하던 공격진의 득점포가 다시 불을 뿜은 게 고무적이다. ‘탱크’ 박정민과 부상에서 회복한 안동혁이 주전경쟁을 통해 실력에 힘이 올라가고 있고, 루시오도 서서히 한 차원 다른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드필더 김은선의 복귀와 함께 공·수의 안정감도 더해지고 있다. 수비라인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지만 임하람-유종현 센터백 콤비가 매 경기 선전하고 있다. 주장 박병주가 복귀하면 좀 더 탄탄한 진영을 꾸릴 수 있을 전망이다.

FA컵 32강전은 물론 박박한 여름철 일정을 대비해야한다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부천전 다양한 변화를 통해 베스트 11과 전체적인 포메이션 활용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앞으로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다.

충주는 전체적인 팀 전력이 떨어지지만 4위에서 선전하고 있다. 홈에서는 아직 1승도 없는 반면 올 시즌 현재까지 거둔 2승 모두를 원정에서 거뒀다는 점은 흥미롭다.

정규리그 8경기에서 처음으로 역전승의 기쁨을 누린 광주가 이 기세를 몰아 올 첫 승을 FA컵에서 쏘아 올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도 체육대회 개막 7일 장흥 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제52회 전남도 체육대회’ 개막식에서 화려한 폭죽이 경기장 하늘을 수놓고 있다. 1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체전은 도내 22개 시·군 선수와 임원 6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군 대항전(종합체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 제공>